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7. 5. 4(목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노혜원 / 사무관 신용현 (Tel. 044-200-2058)
<p>* 즉시사용</p>			

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, 안정적 국정관리에 최선

-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, 총 23차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개최
 - △안보 △경제 △민생안정 등 당면현안들에 대해 대응방안 강구
-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월 4일(목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.
- * 참석 : 경제·사회부총리, 국방·행자·해수부 장관, 국조실장, 금융위원장, 외교1차관 등
-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·사회·외교안보 분야별 점검과 함께 세월호 선체 수색 진행상황, 공명선거 관리 등 당면 현안을 논의하였다.
- 국회의 대통령 탄핵표결('16.12.9) 이후, 황 권한대행은 매주 1~2회씩 총 23차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, △안보 △경제 △민생안정 등 주요분야 현안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.
- (안보)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북 경계태세를 굳건히 하고, 북한에 대한 제재·압박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였다.
 - * △北 신년사 관련 대비태세('17.1.2) △北 미사일 도발 대책('17.2.16 등)
 - (경제) 기업 구조조정, 대미·대중 통상현안 등 대내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,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활성화,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.
 - * △구조조정 점검('17.3.30 등) △미 금리인상에 따른 대응방향('16.12.15) △내수 활성화('17.3.2) △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방안('17.1.2)

- (민생안정) 어려운 여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여성·아동·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, AI방역·미세먼지·식품안전 등 국민안전 대책 마련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역할을 다해 왔다.

* △여성·아동·일하는 청소년 보호대책('17.1.26) △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('17.1.12)
△AI 방역대책('16.12.19 등) △봄철 미세먼지 대응방안('17.3.2) △식품안전 강화대책('16.12.30)

- 황 권한대행은 “일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도 있지만,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 궐위라고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산적한 현안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”면서

- “최근 대내외 어려움 속에도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기 시작해 다행스러우며, 이러한 훈풍이 우리 사회 구석 구석 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”고 하였다.

- 회의를 마무리하며, 황 권한대행은 “그동안 소관 분야에서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,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해 주신,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면서,

-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,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